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醫學精神

宋一炳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Medical Mind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DongEuiBoGam』 and 『Dongyi Suse Bowon』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1. Objectives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present developmental direc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rough summarizing original medical mind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 Methods

It was researched as bibliographic study with chief writing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uch as 『DongEuiBoGam(東醫寶鑑)』 and 『Dongyi Suse Bowon(東醫壽世保元)』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Huh Jun regarded Three Precious(三要: 精, 氣, 神) as important factors in Morpho-imaginary viewpoints. So he suggested finding out the pathological states according to the states of Three Precious.
- (2) As Huh Jun recognized that the essence(精) is the origin of the body, he suggested the medical mind of laying emphasis on the essence. And he suggested that circulating of the essence is important to health and longevity,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traditional medicine laying emphasis on the tonifying of five organs(五臟).
- (3) Dong-mu suggested diagnostic method that is to find out "Natural Principle of Organ(臟腑性理)" by observation of "Knowing-Acting(知行)" and "Morphological aspect and Temper(體形氣像)". And he suggested finding out pathological states according to states of "Good Qi of each constitution(體質正氣)".
- (4) Dong-mu recognized that the disease should be treated by recovering "Good Qi of each constitution" with both pharmacotherapy and non-pharmacotherapy. So he suggested the medical mind of laying emphasis on "Good Qi of each constitution",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traditional medicine laying emphasis on the tonifying of five organs.
- (5) To be brief, Huh Jun layed emphasis on the essence and Dong-mu layed emphasis on "Good Qi of each constitution". Emphasizing internal vitality which is applied to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 is the original medical mind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ey Word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ngEuiBoGam, Dongyi Suse Bowon, Huh Jun, Dong-mu Lee Je-ma

I. 緒 論

人類的 文化는 그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기 때문에 中國과 인접해 있던 우리나라는 古朝鮮시대부터 中國文化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醫學에 있어서도 中國醫學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시켜 나갔다¹. 그러나, 우리나라는 中國醫學을 무비판적으로 收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실정에 맞게 變容시키고 우리 민족의 獨創的인 醫學으로 발전시켜 왔다.

예컨대, 許浚은 『東醫寶鑑集例』²에서 “王節齋

접수일 2004년 10월 13일; 승인일 2004년 11월 28일

교신저자 : 송일병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3 FAX : +82-2-958-9234

E-mail : ibsong@khmc.or.kr

精을 얻었다⁴⁾고 평가하여 精氣神 三要 중심의 醫學精神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許浚의 精氣神 중심의 醫學精神은 『東醫寶鑑』의 編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許浚은 既存의 醫書들과 달리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湯液編, 鍼灸編 이라는 독창적인 體制로 『東醫寶鑑』을 저술하게 된다. 예를 들면, 既存의 中國 醫書들 뿐만 아니라 15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었던 『鄉藥集成方』⁵⁾, 『醫方類聚』⁶⁾와 같은 醫書들은 주로 風門寒門 등의 六淫과 관련된 病門으로부터 시작하여 雜病과 관련된 病門, 婦人小兒와 관련된 病門 등의 순서로 編輯되었는데, 이에 비해 『東醫寶鑑』은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湯液編, 鍼灸編 이라는 體制로 編輯되었다(Table 1). 이러한 內景篇, 外形篇 등의 編制는 人體内部의 生命活動인 精氣神을 중요시하는 許浚의 認識이 반영된 것으로서, 許浚이 氣裏形表의 原理를 바탕으로 形氣論의 形象醫學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許浚은 『東醫寶鑑』 「內景篇身形」에서 形氣論의 方法을 도입하여 宇宙生成과 人身形成을 설명하였다. 우선 「內景篇身形形氣之始」에서 “乾鑿度云 天形出乎乾 有太易 太初 太始 太素”라고 하여 우주 발생 순서를 언급하고 “夫太易者 未見氣也 太初者氣之始也 太始者形之始也 太素者質之始也”라고 하여 氣와 形이 구비된 후에 萬物이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內景篇身形胎孕之始」에서 “聖惠方曰 天地之精氣 化萬物之形 父之精氣 爲魂 母之精氣 爲魄 一月 懷其胎 如酪…”라고 하여 氣가 形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말하며 人身形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內景

篇身形形氣定壽夭」에서 “靈樞經曰 形與氣 相任則壽 不相任則夭”라고 하여 形氣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內景篇身形身形藏府圖」에서 形氣色澤이 다르다면 藏府의 虛實상태도 차이가 있으므로 疾病의 外證이 같더라도 治療方法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⁷⁾, 이것 역시 許浚이 氣裏形表의 原理를 바탕으로 形氣論의 形象醫學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許浚이 形氣色澤의 관찰을 통해 精氣神 三要의 人體内部 生命活動을 파악하려는 精氣神 中心의 望診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Table 2).

Table 2. The Morpho-Imaginary Viewpoints in 『DongEui-BoGam』

氣裏	形表
五藏六府	筋骨肌肉血脈皮膚
精氣神	形氣色澤

2) 形證病證의 精神

許浚은 病證의 인식에서 形證病證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東醫寶鑑』 「雜病篇寒」에서 傷寒을 설명하면서 ‘太陽形證用藥’, ‘陽明形證用藥’, ‘少陽形證用藥’, ‘太陰形證用藥’, ‘少陰形證用藥’, ‘厥陰形證用藥’ 등으로 각각의 形證用藥을 설명하였으며, 그 외에 ‘痺病形證’, ‘破傷風形證’, ‘霍亂形證’, ‘浮腫形證’, ‘脹滿形證’, ‘消渴形證’, ‘瘡疾形證’, ‘瘰癧形證’, ‘邪祟形證’, ‘疔疽形證’ 등으로 各 疾病의 形證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形證病證’의 기본 精神은 복잡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病理現象을 外形의 人象을 통하여 특징을 요약해서 內面的인 病證의 輕重緩急과 順逆의 實체를 精氣神의 充實여부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다.

3) 精 중심의 養生觀

한편, 既存 醫學에서는 五臟을 중심으로 人體를 인식했지만, 許浚은 物質의 最小 단위인 精을 중심으로 人體를 인식했다⁸⁾. 즉, 許浚은 『東醫寶鑑』 「內景篇精爲至寶」에서 “精能生氣 氣能生神

4) 『東醫寶鑑』 「集例」: “臣勤按人身 內有五藏六府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 以成其形 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謂此也 黃庭經 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象之圖 道家以清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

5) 1431년(世宗 13)에 權採孝通·盧重禮·朴允德 등이 재래의 여러 醫書를 참고하여 編纂, 1433년에 刊行한 것으로 1488년(成宗 19)에 부분적으로 된 한글 번역본이 간행되었고 다시 1633년(仁祖 11)에 重刊되었다.

6) 世宗이 集賢殿 副校理 金禮蒙과 著作郎 柳誠源 등에게 명하여 모든 醫方을 수집하여 分門類聚하여 一書를 合編한 뒤에, 다시 集賢殿 直提學 金汝辛·碩祖와 副校理 李芮, 承文院 校理 金守溫, 醫官 全循義·崔閔金·有智 등에게 編纂케 하고, 安平大君 瑑, 都承旨, 金思哲 등에게 감수케 하여 1445년(世宗 27)에 『醫方類聚』를 완성하였다.

7) 『東醫寶鑑』 「內景·身形身形藏府圖」: “朱丹溪曰 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及小 肥不及瘦 人之色 白不及黑 嫩不及蒼 薄不及厚 而況肥人濕多 瘦人火多 白者肺氣虛 黑者腎氣足 形色既殊 藏府亦異 外證雖同 治法迥別.”

8) 『東醫寶鑑』 「內景篇精」: “精爲身本”

榮衛一身 莫大於此 養生之士 先寶其精 精滿則氣壯 氣壯則神旺 神旺則身健 身健而少病 內則五藏敷華 外則肌膚潤澤 容顏光彩 耳目聰明 老當益壯矣”라는 象川翁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藏府百體의 主’⁹⁾인 精氣神 중에서도 精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精이 老化로 인해 줄어들게 되어도 精을 단련시켜 몸 안에서 잘 돌려지도록(小周天) 하면 健康을 유지하고 長壽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內景篇精煉精有訣」에서 煉精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內景篇精節慾儲精」에서 老化로 인해 精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이를 때 節慾하여 精을 보존할 것을 제시하였고¹⁰⁾, 「內景篇精補精以味」와 「內景篇精補精藥餌」에서 부족해진 精을 飲食¹¹⁾과 藥餌¹²⁾를 통해 보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許浚이 精을 身之本으로 인식하여 煉精, 節慾儲精, 補精以味, 補精藥餌 등을 통해 健康을 유지하고 長壽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은 既存의 五臟 중심의 認識과는 다른 精 중심의 새로운 醫學精神이라 생각된다. 또한, 許浚이 健康 유지와 長壽에 있어서 精을 단련시켜 몸 안에서 잘 돌려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既存의 五臟 중심의 補法을 중시하는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醫學精神이라 생각된다.

2.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醫學精神

1) 形心論의 形象醫學

- 9) 『東醫寶鑑』 「集例」: “臣勤按人身 內有五藏六府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 以成其形 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
- 10) 『東醫寶鑑』 「內景篇精節慾儲精」: “內經以八八之數 爲精髓竭之年 是當節其慾矣. 千金方載 素女論六十者 閉精勿泄 是慾當絕矣 宜節不知節 宜絕不能絕 坐此而喪生 蓋自取之也.”
- 11) 『東醫寶鑑』 「內景篇精補之以味」: “內經曰 精生於穀. 又曰 精不足者 補之以味. 然禮郁之味 不能生精 惟恬憺之味 乃能補精. 洪範 論味而曰 稼穡作甘 世間之物 惟五穀得味之正 但能淡食 穀味最能養精.”
- 12) 『東醫寶鑑』 「內景篇精補精藥餌」에서 藥餌를 통해 精을 補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人蔘固本丸, 瓊玉膏, 斑龍丸, 地黃元, 延年益壽不老丹, 延齡固本丹, 固真飲子 등의 處方과 地黃, 兎絲子, 肉蓯蓉, 五味子, 何首烏, 白茯苓, 枸杞子, 金櫻子, 山茱萸, 牡蠣, 桑螵蛸, 原蠶蛾, 蜻蛉, 鷄頭實, 覆盆子, 胡麻, 韭子, 龍骨, 鹿茸, 黃狗肉, 臘臍臍 등의 單方을 제시하였다.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⁴⁾에서 ‘萬物은 生할 때 物과 則을 부여받는데, 인간의 경우 物에 해당하는 것이 人形이고 則에 해당하는 것이 人性이며, 人形은 人性으로 인해 나타난다’¹³⁾고 하여, 人性·人形の 形象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옛 사람들의 저술을 통하여 우연히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깨닫고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게 되었다”¹⁴⁾고 하였는데, 이러한 臟腑性理는 人性의 개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서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등의 形象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四象人 辨證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四統』에서 知行之象을 통하여 四象人을 구분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¹⁵⁾, 孔子, 曾子, 孟子, 子思의 知行之象을 통해 四象人의 象을 구분하기도 하였다¹⁶⁾. 그리고, 東武公은 生理 현상에서의 偏大之臟과 偏小之臟의 標本 관계¹⁷⁾를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體形氣像을 통해 四象人을 구분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¹⁸⁾, 이는 形象觀의 認識體系에 의거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天生萬物 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而不二者 謂之太極.”

14) 『東醫壽世保元·醫源論』: “余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壽世保元.”

1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四統』: “太陽之知 知而過也 衆人之過於知者 易爲許也. 少陰之知 愚而不及也 衆人之愚而不及者 易爲嗇也. 太陰之行 賢而過也 衆人之賢而過者 易爲侈也. 少陽之行, 不肖而不及也, 衆人之不肖而不及者 易爲懶也”

1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四統』: “夫子之周遍 立於道也 立於道者 立於身也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 明於德也 明於德者 明於心也 少陰之象也. 孟子之雄辯 言於善也 善也者 善於事也 太陰之象也. 子思之中庸 行而誠也 誠也者 誠於物也 少陽之象也.”

1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少陰人 以陽煖之氣爲保命之主 故腎胃爲本而膀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清之氣爲保命之主 故膀胱大腸爲本而腎胃之爲標也.”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太陰人內觸胃脘病論」: “太陰人 以呼散之氣爲保命之主故 腦頤胃脘爲本而腰脊小腸爲標. 太陽人 以吸聚之氣爲保命之主故 腰脊小腸爲本而腦頤胃脘爲標.”

18)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 “太陽人體形氣像 腦頤之起勢盛壯而 腰圍之立勢孤弱. 少陽人體形氣像 胸襟之包勢盛壯而 膀胱之坐勢孤弱. 太陰人體形氣像 腰圍之立勢盛壯而 腦頤之起勢孤弱. 少陰人體形氣像 膀胱之坐勢盛壯而 胸襟之包勢孤弱.”

한 四象人의 體質診斷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東武公은 形心論의 形象醫學의 관점에서 人體外部의 四象人의 知行之象, 體形氣像 등을 觀察하여 人體內部의 臟腑性理를 파악하는 體質診斷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許浚의 精氣神 중심의 望診法을 계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東武公은 人性人形의 形象觀을 醫學에 적용하여 臟腑性理에 따라 體形氣像의 특징이 각 체질별로 다르게 형성됨을 제시하고, 許浚이 추구한 形氣論의 形象醫學(一般論의 形象醫學)을 形心論의 形象醫學(四體質의 形象醫學)으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The Morpho-Imaginary Viewpoints in 『Dongyi Suse Bowon』

氣裏	形表
臟腑性理 (人趨心慾, 人臍臟理)	知行之象 體形氣像

2) 形證病證의 精神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五統』에서 偏小之臟의 體質正氣 상태에 따라 病證이 外部로 다르게 발현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고¹⁹⁾,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⁵⁾에서 ‘脾約病形證’, ‘胃家實病形證’, ‘太陽陽明之發熱形證’, ‘太陰少陰之自利形證’ 등의 ‘形證病證’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²⁰⁾,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體質正氣를

1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五統』: “肺部盛則肩背暢 脾部盛則胸膈通 肝部盛則兩脇張 腎部盛則腰腸雄. 肺部衰則皮毛焦 脾部衰則肉理寒 肝部衰則筋脉酸 腎部衰則骨髓枯.”, “肺意快則能哭泣 脾臍壯則能歌唱 肝魂寧則能話談 腎志裕則能善笑 肺意阻則怔忡作也 脾魄蕩則恍惚亂作也 肝魂淫則恍惚作也 腎志促則健忘作也.”, “少陰人 面色淡紫則無病 濁黃則有病 太陰人 面色潤紫則無病 少陽人 面色潤蒼則無病 白黑則有病 太陽人 面色淡白則無病 黑則有病.”, “太陽人少陰人 膚肉清瘦則無病 濁肥則有病 太陰人少陽人 膚肉濁肥則無病 清瘦則有病.”,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 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

2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少陰人外感病論: “脾約病形證 全體有汗人中不汗小便利者 爲主證 而其始焉身熱汗自出不惡寒也...胃家實病形證 腹滿大便便發狂者爲主證 而其始焉身熱汗自出不惡寒也.”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少陰人腎胃病篇尾泛論: “發熱惡寒者 爲太陽病 發熱不惡寒者 爲陽明病 太陽陽明之發熱形證 一也 而惡寒不惡寒之間 相去遠甚 而陽氣之進退強弱 泰山之比岡陵也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 一也

중심으로 體質病證을 輕證, 重證, 險證, 危證의 四大證²¹⁾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東武公은 體質正氣를 중심으로 人體의 다양한 病理 현상들을 몇 가지 ‘形證病證’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東武公이 體質에 따른 四臟 중심의 差等的 形證病證 精神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體質正氣 중심의 治療觀 및 養生觀

한편, 既存 醫學에서는 五臟을 중심으로 人體를 인식했지만, 東武公은 四臟 중심의 體質正氣(命脈實數)를 바탕으로 人體를 인식했다. 그리하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에서 “太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肝 故太陽人 以肝臟剝削 爲命脈長短...太陽人 肝臟十分圖全而與肺相敵者 極完境人也 一半虧缺而與肺讓倍者 極壞境人也 過此則死 以此推之 太陽人肝臟部一半 爲命脈實數 他臟倣此”라고 하여 四象人의 ‘命脈實數’²²⁾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 偏小之臟을 本으로, 偏大之臟을 標로 설정하고 四象人의 保命之主를 제시하였다²³⁾.

따라서, 東武公은 偏小之臟의 本常之氣²⁴⁾를 편

而渴不渴之間 相去遠甚 而冷氣之聚散輕重 雲夢之比滌澤也.”

2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陰證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也.”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陽人泛論: “少陽人病 中風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 五證 同出一屬 而自有輕重浮腫 喘促 結胸 痢疾 寒熱往來 胸脇滿 五證 同出一屬 而自有輕重...中風 受病太重故 治法不可期必 吐血 受病猶輕故 治法可以期必 中風吐血 調養爲主 服藥次之 嘔吐以下 腹痛 食滯 痞滿 服藥調養 則其病易愈.”

2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太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肝 故太陽人 以肝臟剝削 爲命脈長短. 太陰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肺 故太陰人 以肺臟剝削 爲命脈長短. 少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腎 故少陽人 以腎臟剝削 爲命脈長短. 少陰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脾 故少陰人以脾臟剝削 爲命脈長短. 太陽人 肝臟十分圖全而與肺相敵者 極完境人也, 一半虧缺而與肺讓倍者 極壞境人也, 過此則死, 以此推之 太陽人肝臟部一半 爲命脈實數, 他臟倣此.”

23)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少陰人 以陽煖之氣爲保命之主 故腎胃爲本而膀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清之氣爲保命之主 故膀胱大腸爲本而腎胃之爲標也.”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太陰人內觸胃院病論」: “太陰人 以呼散之氣爲保命之主故 腦髓胃院爲本而腰脊小腸爲標. 太陽人 以吸聚之氣爲保命之主故 腰脊小腸爲本而腦髓胃院爲標.”

안하게 하면 健康을 유지하고 長壽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偏小之臟의 本常之氣인 ‘命脈實數’가 손상되어 疾病이 발생되면 藥物的 正己(藥物治療)와 非藥物的 正己(心身攝生, 飲食攝生)의 방법을 통해 ‘命脈實數’를 회복시켜 治療한다고 인식하였다.

藥物的 正己와 관련하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에서는 臟氣가 主이고, 藥氣가 客이므로 藥氣뿐만 아니라 臟氣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 치료해야 한다²⁵⁾고 서술하면서 臟氣와 藥氣를 벽에 흙을 바를 때의 主土와 客土에 각각 비유하여 설명하였다²⁶⁾.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는 ‘命脈實數’의 狀態에 따라 急用藥 預用藥 大用藥²⁷⁾ 등의 體質病證의 差等的 用藥 概念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東武公이 藥物的 正己에 있어서도 體質正氣를 중시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五統』에서는 非藥物的 正己의 방법인 文法과 藥物的 正己의 방법인 武法을 함께 運用해야 함을 서술하였고²⁸⁾, 『濟衆新編五福論』에서는 長壽 하기 위해서는 食餌와 心火를 조절해야 하며, 醫藥의 남용과 오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여 藥物的 正己보다 非藥物的 正己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²⁹⁾. 즉, 東武公은 健康유지와 長壽에 있어서 外

部的 藥物을 사용하는 것보다 非藥物的 正己를 통해 인체 內部的 體質正氣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凡人二十前後 血氣方張 情慾急促之時則 內傷命脈退縮於牢獄捷徑也 牢獄命脈進復於內傷捷徑也 三十時血氣與 情慾已興 二十時不同也 四十則情慾緩安而命脈旺者 猝然不縮退…”라고 하여 연령에 따라 命脈實數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廣濟說』에서 인간의 일생을 幼, 少, 壯, 老의 4期로 구분하면서 幼年期에는 好聞見하고, 少年期에는 好勇猛하며, 壯年期는 好交結하고, 老年期에는 好計策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未及하면 喜怒哀樂이 膠着하게 되어 病이 된다고 하여 年齡에 따른 養生法을 제시하였다³⁰⁾. 즉, 許浚이 老化로 인해 精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의 養生法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東武公은 老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年齡에 맞추어서 養生을 하여 體質正氣를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東武公이 四臟 중심의 體質正氣(命脈實數)를 바탕으로 藥物的 正己(藥物治療)와 非藥物的 正己(心身攝生, 飲食攝生)를 해야 한다는 體質正氣 중심의 治療觀 및 養生觀을 제시한 것은 새로운 醫學精神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東武公이 外部의 藥物을 사용하는 것보다 非藥物的 正己를 통해 인체 內部的 體質正氣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年齡에 따른 養生法을 제시한 것은 既存의 五臟 중심의 補法을 중시하는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醫學精神이라고 생각된다.

2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蓼苓杞菊等藥性淡平 有病可以久服常服 而亦有時間斷 以安臟本常之氣.”

2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臟氣主也 藥氣客也 臟氣三倍而藥氣一倍則 其病即通也 臟氣二倍而藥氣一倍則 藥力易達也 臟氣與藥氣相敵則 勝負之數未可知也 臟氣與藥氣對敵則 倒戈之變可立待也 所以少陽之水銀不可以輕用 少陰之參附不可以屢用.”

2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塗壁之客土與主土 不成完合則 數三月後 客土與主土俱落 補臟之藥氣與臟氣 不成完合則 一半年後 藥氣與臟氣俱渴 故峻補輕粉參茸等藥 不可屢用 用之者 一二年間尤極攝身 期于藥氣與臟氣完合 然後保無虞.”

27)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 “陽明少陰 以邪犯正之病 不可不急用藥也…厥陰陰毒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也…太陽太陰之胃家實黃疸 正邪壅錮之病 不可不大用藥也.”

2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五統』: “少陽人戒暴哀之傷 而有時服淡平潤藥 少陰人 戒暴喜之傷 而有時服淡平溫藥則 文武并用長久之術或者近似也 若少陽人不戒哀心 少陰人不戒喜心 而不服藥則 譬如秦始皇漢光武 窮法黷武財用日耗 而四海益亂.”

29) 『濟衆新編五福論』: “百病 生於心火 主人 一日再食農夫 一日或三食 見事應變 不過用心火則無不得壽 禍福無不自己求之者而 壽夭無不自己求之”

“兒稚之重病者 時俗妄用醫藥針灸 多致夭折. 大凡重病雖不用醫藥 慎攝風寒生冷 則十病中八九人易生也. 若亂用醫藥針灸 則十病中五六人 易死也. 然急病 不可不廣問醫藥 而不可妄用.”

30) 『東醫壽世保元廣濟說』: “初一歲至十六歲 曰幼 十七歲至三十二歲 曰少 三十三歲至四十八歲 曰壯 四十九歲至六十四歲 曰老. 凡人 幼年 好聞見而能愛敬 如春生之芽 少年 好勇猛而能騰捷 如夏長之苗 壯年 好交結而能修飭 如秋斂之實 老年 好計策而能秘密 如冬藏之根. 幼年七八歲前 聞見未及 而喜怒哀樂膠着則成病也 慈母宜保護之也 少年二十四五歲前 勇猛未及 而喜怒哀樂膠着則成病也 智父能兄宜保護之也 壯年三十八九歲前 則賢弟良朋可以助之也 老年五十六七歲前 則孝子孝孫可以扶之也.”

III. 結論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醫家は 藥餌鍼灸를 치료법으로 삼아 粗를 얻었지만, 道家는 淸靜修養을 근본을 삼아 精을 얻었다고 평가하면서 精 중심의 의학을 제시하였고, 東武公은 許浚의 이러한 精神을 적극 수용하여 性情 中心의 體質正氣 醫學인 四象醫學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1. 許浚은 形氣論의 形象醫學의 관점에서 內的 要素인 ‘精氣神’ 三要를 중심으로 醫學을 運用하였으며, ‘精氣神’의 충실 여부에 따라 病證의 輕重緩急과 順逆을 파악하는 形證病證의 精神을 제시하였다.

2. 許浚은 精을 身之本으로 인식하여 煉精, 節慾 儲精, 補精以味, 補精藥餌 등을 통해 健康을 유지하고 長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精 중심의 醫學 精神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 許浚이 精을 단련시켜 몸 안에서 잘 돌려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既存의 五臟 중심의 補法을 중시하는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醫學精神이라고 생각된다.

3. 東武公은 形心論의 形象醫學의 관점에서 人體外部의 知行之象, 體形氣像 등을 觀察하여 人體 內部的 臟腑性理를 파악하는 體質診斷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體質正氣를 중심으로 人體의 다양한 病理 現象들을 몇 가지 ‘形證病證’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四臟 중심의 差等的 形證病證 精神을 제시하였다.

4. 東武公은 四臟 중심의 體質正氣를 바탕으로

藥物的 正己(藥物治療)와 非藥物的 正己(心身攝生, 飲食攝生)를 해야한다는 體質正氣 중심의 治療觀 및 養生觀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 東武公이 外部의 藥物을 사용하는 것보다 非藥物的 正己를 통해 人體 內部的 體質正氣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年齡에 다른 養生法을 제시한 것은 既存의 五臟 중심의 補法을 중시하는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醫學精神이라고 생각된다.

5. 이와 같이, 許浚의 精 중심의 醫學精神과 東武公의 體質正氣 중심의 醫學精神이 人體 內部的 生命活動을 중심으로 治療醫學과 豫防醫學을 함께 運用하려는 우리 民族의 고유한 醫學精神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韓醫界의 一角에서는 五臟 中心의 藥物的 補藥 精神만을 통해 治療醫學과 豫防醫學을 함께 運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許浚 以前의 醫學精神으로 回歸되는 것으로서 止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參考文獻

1.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81.
2. 許浚. 東醫寶鑑. 大星出版社, 서울, 1990.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서울, 1998.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刊行, 서울, 2000.
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서울, 2001.